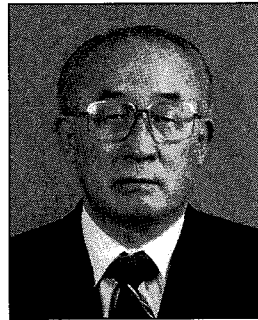


포장관련 단체 역할 소고

(사)한국포장협회

정부관련 사업수행, 대표기관으로써의 역할 충실



▲ 방대엽 회장

1991년 7월 원지산업(주), (주)남경화학, 울촌화학(주) 등 28개 업체대표가 모인 가운데 포장업계의 숙원이었던 한국포장협회 발기인대회를 가졌다.

한국포장협회는 91년 당시까지 정책적으로 등한시

되어 오던 포장에 대한 정보 및 국민에 대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줄 목적으로 상공부에 사단법인 한국연포장협의회로 허가신청을 하여 국내 포장산업의 대표기관으로써 역할에 무게를 둔 (사)한국포장협회로 설립허가를 받고 현재까지 국내 포장산업 구심체 역할을 하는 단체로 발전하고 있다.

92년 4월 제3회 국제컨버팅기자재전에 참가하여 한국관을 개설하고 국내 포장산업을 홍보하였는가 하면 93년 5월 계속적으로 준비해 오던 월간 포장정보를 창간하여 포장업계의 정보에 대한 욕구를 해소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 또한 96년 6월에는 월간 포장계로 제호와 판형을 변경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여 더욱 알찬 정보지 역할을 다하고 있다.

국내 포장관련단체들은 특화된 제품을 중심으로 안정된 활동을 하고 있다.

순수 포장관련단체로 최대의 민간단체인 (사)한국포장협회를 비롯 최근 포장관련단체들이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범 포장단체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각 단체들을 이해관계로 인해 부조화의 길을 걸어오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각 단위조합과 협회등이 세분화된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어 포장업계의 위상강화를 위해 일원화된 장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국내 포장단체들이 사업과 활동을 조명해 본다.

-편집자주-

그간 국제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전시회 참관단 파견, 대정부건의, 업계거래질서 확립, 불법스카웃 방지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명실공히 국내 유일의 포장관련 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97년 7월에는 국제간 교류의 필요성을 인식, 국내 포장산업을 세계화하기 위해 아시아포장연맹 회원으로 정식으로 가입해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한국포장협회는 협회 산하에 알미늄박분과위원회, 포장기계분과위원회, 연포장분과위원회, 제판·필름분과위원회, OPP필름분과위원회를 두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 각기 분야별 애로사항을 공동으로 대처하는 등의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포장기계분과위원회는 포장기계용어의 사용난립으로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점 해소의 일환으로 96년부터 2년간 작업해온 포장기계용어표준화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해 11월 포장기계용어표준집 책자를 발간했다.

이 포장기계용어표준집은 발간취지에 맞춰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전국 도서관, 관련기업체, 학계, 상공회의소, 산업자원부, 기계공업진흥회 등에 배포됐다.

97년부터 산업기반기금 고부가가치사업 포장분야 취급기관으로 지정되어 한 업체당 융자금 1~5억원을 융자지원하고 있는 한국포장협회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98산업기반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상반기에만 모두 51억원을 25개업체에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추가로 2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한국포장협회는 매년 2월25일을 포장인의 날로 선포하고 이 날 지난 96년 10월1일 제정된 한용교포장인상을 시상하고 있다.

이 상은 한국포장협회 한용교 초대회장이 회사한 기금 1억원의 재원으로 마련된 것으로 국내 포장산업에 종사하는 포장인들에게 긍지와 신념을 갖게하고 연구의욕을 고취시킴으로서 포장산업 발전을 유도함은 물론 대국민 홍보효과로 포장산업 위치를 재정립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시상은 5개분야에서 7명을 선발해 상장, 상패, 상금 1백만원을 수여하는데 포장산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관련단체 또는 업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내용 및 추천절차는 5개분야에서 최소 2명씩 선발, 수상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 한용교 포장인상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또한 포장산업계로 형성된 국내 유일의 단체로서 후진양성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하고있는 한국포장협회는 지난해 9월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경북과학대학(구 동국전문대학) 포장과와 산학협력조인식을 가짐으로써 산업체와 학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서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이어 그 해 12월에는 신성대학 산업포장과의 상호보완적 기능을 보완하고 접목시킴으로서 인적·물적 자원을 교류하여 상호간의 이익을 추구하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산학협력 조인식을 가지기도 했다.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는 현재 102개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는 경기침체에 따라 도산하는 업체를 비롯해 회원수가 다소 축소되기도 했으나 내년에는 회원사 가입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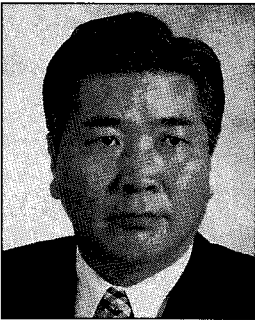
한국포장협회는 올해 환경부의 포장재에 대한 무차별한 환경규제 움직임에 대응하여 업체의 의견을 모아 이에 대응하는 강력한 건의를 하는 등 환경과 관련한 포장재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 이는 포장관련법규의 올바른 법안 마련에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포장업계 구심체로써 그 역할에 충실한 것으로 앞으로도 포장산업 발전에 앞장설 것이다.

더욱이 장기적으로는 포장관련 전시 및 교육, 진흥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국내 포장산업계를 대변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환경관련 대정부사업에 적극 나서



▲ 이국노 이사장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은 1973년 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과 대한합성수지원료공업협동조합이 합병되어 한국플라스틱조합으로 탄생, 4월11일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1993년 2월3일 제20회 정기총회에서 11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현 이국노이사장은 조직개편 단행 등의 조합 제반업무의 새로운 틀을 잡아나갔다.

그후 여러 번의 조직개편을 통해 현재 7부 1원 1사무소 체제를 갖추고 운영되고 있는 조합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 재사용 문제를 전담할 사단법인 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를 발족하였으며 한국플라스틱시험원이 공업진흥청으로부터 공인시험기관(KOLAS)으로 지정받아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KOLAS란 국가적 권위를 부여받은 인정기구

가 시험·검사기관의 시험능력을 공인된 평가기준에 따라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인정해 주는 제도로 이것은 시험·검사기관의 업무를 표준화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와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시험·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보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험원은 소비자가 편리하고 안심하게 사용하도록 철저한 품질관리와 한국플라스틱시험원의 엄격한 시험검사에 합격된 제품에 부착하는 품질보증 표시이다.

PL마크 대상품목은 필름류, 파이프류, FRP류, 시트류, 용기류, 압출·사출 제품류 등 플라스틱 전체 품목이며 PL승인업체에서는 품질보증 마크인 PL마크를 표시하여 선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생산업체의 사내 표준화, 생산관리, 제품관리, 설비관리, 품질향상, 생산현장 애로, 표준화 및 품질경영, PL인증 획득을 위한 기술지도 를 실시하고 있다.

지도분야는 사내표준화, 생산관리, 제품관리, 설비관리, 품질향상, 생산현장 애로, 표준화 및 품질경영, 시험검사분야이며 농업용 및 포장용 PE필름, 쓰레기봉투, PE 및 PVC관류, 방수시트 및 루필벨트류, 합성수지 용기류, FRP류, 밴드끈 등이다.

더욱이 플라스틱 제품의 수출 및 납품 등에 필요한 시험의뢰에 따라 시험검사 및 성능시험을 통해 공인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검사종류는 납품 및 품질관리, PL승인 시험검사 기술지도시 공정관리 시험검사, 일반 의뢰검사, 자체 품질 평가를 위한 검사, 불량률 규명을 위한 시험이다.

국내 환경관련 플라스틱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플라스틱조합은 최근 정부의 합성수지 사

용규제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 공개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등 업계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있다.

프라스틱조합은 재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데 프라스틱을 고품연료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지도 마련하고, 공장 신축에 대한 허가도 받은 상태이다.

이밖에 성동, 성북구 등 4개 지자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일반 비닐봉투 재활용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73년 조합설립 이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던 조합은 생산량이 처음으로 16.5%로 급감했고, 수출도 7.6%로 감소세로 돌아서 이를 위해 74년부터 일본, 대만과 함께 개최해 온 '극동플라스틱 업계 간담회'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수출입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무역부와 수출분과위원회의 활동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 미국, 일본 등 해외의 주재 명예이사를 적극 활용해 업계의 해외시장을 개척, 적극 지원하기도 할 것이며 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업계에 품질향상을 강조할 것이다.

특히 지난 9월에는 국립품질기술원으로부터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로 첫 지정을 받았다.

우수단체표준은 올 7월 시행된 산업표준화법을 근거로 한 것으로 이 단체가 인증한 품목은 KS규격과 동등한 자격을 갖게 되며 정부나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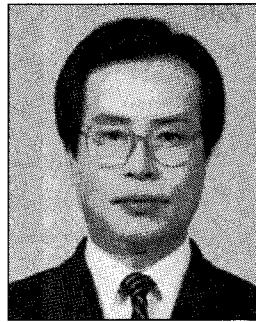
또한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은 지난 달 12일 한국표준협회가 주최한 전국품질경영대회에서 산업표준화상을 수상했다.

프라스틱조합이 수상한 산업표준화상은 지난 77년 제정대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생산업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프라스틱조합이 이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지난 93년까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단체표준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7품목 승인받았고 이 중 21품목을 지정승인 받았기 때문이다.

한국포장기술인협회

국내 유일의 포장기술인 친목단체



▲ 김선창 회장

한국포장기술인협회는 1985년 2월 서통화학(주) 최기봉 전무이사(현 한국지공(주) 대표이사), 울촌인쇄(주) 신재성 상무이사(현 동양PPC 회장), 남경화학공업(주) 김선창 전무이사

(현 남경화학공업(주) 대표이사), 한국포장기술연구소 김영호 소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회칙과 대상회원을 선정, 본격적으로 모임을 활성화시켰다.

그간 13년동안 연포장산업계의 유일한 기술인모임으로서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나날이 운신의 폭을 넓혀가고 제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 있다.

제1대 최기봉 회장, 2대 신재성 회장이 재임 3년을 거치면서 친목도모 단체로서의 성격을 뚜렷이 해오다 88년 김선창 남경화학공업(주) 대표이사가 3대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친목을 바탕으로 하여 해외전시회 참관단 파견, 포장기술세미나 개최, 포장기자재총람 발간 등 구체적인 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포장기술세미나 사업을 포장기술인들의 모임

에서의 필수사업으로 여기고 가장 중점을 두어 온 기술인협의회는 지난 10월 23일 제14회 세미나를 마치기까지 우수한 강사진과 시기적절한 내용을 주제로 기술을 소개해 업계의 많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그간의 포장기술인협회 세미나 주제를 살펴보면 당시 포장산업계의 이슈를 파악할 수 있는데 85년 10월 열린 제1회 세미나는 포장산업계의 전반적인 추이, 그라비아인쇄의 테크닉, 최신 감압 점착테이프의 가공기술과 그 시장에 대한 내용이 강연됐고 2회에는 폴리프로필렌 필름, 포장용 폴리에스터 이축연신필름, 인쇄와 잉크, 연포장재료를 위한 컨버팅기술과 접착제 및 접착도제의 신개발 동향에 대해, 3회는 포장용 알루미늄박, 새로운 포장재료 및 용기, 폴리에틸렌 수지, 식품용기 및 포장의 위생관리 등 이론적인 내용위주로 강연된 것이 특징이며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알차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는 포장기술세미나는 국내 및 일본을 중심으로 한 해외의 고급 포장기술을 소개하여 포장업계 신기술을 공유 연구,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93년부터 격년으로 발간하여 통권 3권째를 발간한 포장기자재총람은 국내 각 분야별 포장업체의 포장기자재 등 생산품목을 업체현황과 함께 소개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카탈로그집이다.

포장기술인들간의 친목도모를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한국포장기술인협의회는 매년 정기이유회를 개최하여 회원간의 만남을 통한 정보교환, 업계에서의 결속력을 다지는 기회로 삼고 있는가 하면 세대를 뛰어넘는 전 회원간 친목도모의 장이기도하다.

한국포장기술인협의회는 매년 3월경 정기총

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회원들의 동정과 신입회원 가입, 회칙개정 등의 기본사업을 추진하고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시기적절한 특강을 가미해 회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매년 12월에는 송년모임을 가져 한해를 돌아보며 회원들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더욱이 대외적으로는 관련단체와의 유대관계도 친밀히 하여 전 산업계의 결속력을 다지는데 동참하고 있으며 특히 설립 초창기부터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와는 여러 면에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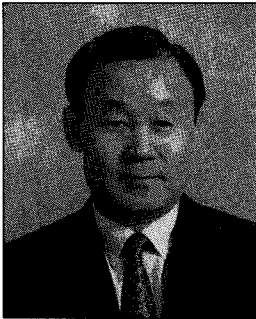
내년 99년 3월 현 김선창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신입회장이 선출되는 중대한 사업을 앞두고 있는 한국포장기술인협의회는 올해 IMF 한파 등 업체의 여러 어려움으로 회원수가 다소 축소되는 안타까움도 감수해야 했으나 99년도는 기본사업인 정기총회, 체육대회 및 야유회, 해외 전시회 및 공장시찰단 파견, 포장기술 세미나, 송년의 밤, 포장기자재 총람 발간사업 외에도 새로운 사업시도로 협회회의 발전하는 모습을 제시할 것이다.

한국포장기술인협의회 회원자격 요건은 자연계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 공업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분야에서 7년이상 근무하고 직위가 과장급 이상인자, 포장산업 전분야와 제조업체 중 포장연구소, 포장전담부서 요원, 학계, 단체의 생산, 연구개발, 품질관리, 기획, 시험, 기술지도부서에서 종사하는 개인, 공업계·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당분야에서 12년이상 근무하고 직위가 과장급 이상인자, 인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직위가 부장급이상인자, 자연계대학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신규개발분야,

소비자관련단체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국제연구기관의 해당분야에 근무하고 직위가 과장급 이상인자, 이사회에서 특별히 회원가입을 필요로 하는 자 중에서 본회 회원 2인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를 통해 입회할 수 있다.

한국포장기계협회

해외시장 개척에 역점



▲ 신현재 회장

협회는 1994년 10월 창립돼 현재 70여 회원사가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각종 포장기계를 전문으로 생산·판매하는 업체들로 구성된 국내 유일의 포장기계 관련협회이다.

지난 10월 제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회장단을 구성하고 회원사 확대에 주력하며 회원사간의 과당경쟁 방지 및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하여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동남아 등 5개 지역으로 구분 위원회가 구성되어 해외 수출 진흥을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그간의 주요 사업으로는 한국포장기계편람을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발간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전세계에 배포하여 국내 포장기계를 소개하여 국내의 기술 수준 및 판매 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98년도에는 두 번째로 발간하였으며 격년제로 발간 예정이다.

국내의 포장기계 전시회 관련 사업으로는 98년 6월 국제포장기자재전(IPP'98)을 COEX에

서 (주)경연전람과 공동으로 주관하여 큰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미국 CHICAGO PACK에 32명, TOKYO PACK에 45명과 CHINA PACK에 15명의 시찰단을 파견하는 등 해외의 포장기계 기술 수준 파악과 마케팅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고, 99년도에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되는 INTER-PACK(99년 5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CHINA PACK(99년 6월)과 일본에서 개최되는 JAPAN PACK에 대규모 시찰단을 파견하여 정보 수집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매월 개최되는 정기 월례회는 회원사의 공장 방문과 각종 세미나를 겸하여 실시함으로써 회원사간의 친목 도모와 상호 제품 정보 교환은 물론 저명인사의 초빙 세미나로 회원사의 큰 호응과 반응을 얻어 매월 40여명의 회원이 회동하여 월례회가 진행되는 등 매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포장기계협회는 각종 포장기계만을 전문으로 생산 판매하는 회사가 그 회원의 대상으로 제조업의 상호 정보 교환과 관리 기법의 상호 협조는 그 협력 차원을 넘어 서로 외주 가공 지원 등의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제조 분야는 물론 앞으로는 수출 분야에도 공동판매 전선을 이룩하기 위하여 지역별 해외시장 개척위원회가 지난 10월 구성되었으므로 회원사의 기대가 매우 크며 업계의 주목 대상이 되고 있다.

98년 8월에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협회 홈페이지(<http://www.kpmasito.or.kr>)를 구축하고 개설하여 협회 차원의 정보는 물론 전 회원사의 소개와 제품 홍보를 국내는 물론 전세계에 알리고 있다.

99년도의 중점 사업으로는 협회 회원사의 회

원수첩의 재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6월 예정인 CHINA-PACK(상하이)의 공식 후원 기관으로 참여하여 협회 홍보관을 단독 운영하고 회원사의 카탈로그 전시회를 통하여 중국 시장 개척에 역점을 둘 계획이며 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외시장 개척위원회의 활동으로 수출 물량 증진에 열을 올릴 계획이다. 또한 세계 최대 포장기계 전시회인 INTER PACK에는 협회 회원사의 기계 전시는 물론 대규모 시찰단을 파견하여 기술 정보 교환 및 판매 정보를 입수할 것이다.

2000년 발행 예정인 한국포장기계편람 발간의 준비를 완벽하게 하여 편람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 모두 손색이 없는 편람이 되도록 준비 중이며 포장기계 업계와 사용자를 위한 전문 주간지 또는 월간지의 발행도 계획하고 있다.

회원사의 증가와 적극적인 호응에 따라 제2회 단합대회 및 세미나의 제주도 개최를 준비 중이며 특히 99년도에는 매월 실시하는 공장 방문 겸 월례회를 국내 우수 식품, 제약회사의 공장 방문과 겸하여 실시함으로 현장 견학을 통한 포장기계의 활용성과 USER와의 직접 대화를 통한 상호 정보 교환의 계기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포장기계 유관 협의체와도 유대 관계를 활발히 함으로 협회의 위상 제고와 활발한 해외 시장 정보 입수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 포장기계 업계는 중소기업 업종으로 그 규모와 운영이 타 기계 업종에 비하여 영세하고 적기 때문에 정부 관서는 이를 감안하여 일반 업종과 구분된 지원이 요망되며 특히 해외 전시회 참가를 위한 해외 시장 개척 비용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내 포장기계 전시회 개최시 해외 바이어의 적극적인 유치 및 포장기계 상설 전시장의 개설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싶다.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

중소기업 중심 지함업체 권익보호 최선



▲ 이대길 이사장

1980년대 국내 지함업계는 대형업체의 덤핑공세와 구조불안에 따른 관련업계의 원자재가격 인상을 위한 담합행위 등에 의해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영세한 업체들이 대부분인 지함제조업체들은 그 불이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고, 뚜렷한 대안을 제기할 여력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어려운 현실 속에서 힘든 시기를 견뎌오던 중소지함업체들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 각 지역별 친목모임을 규합해 1989년 4월 현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의 전신인 한국지함친목회를 발족시킨다.

공동체 결성의 목적이 협동조합 설립이었기 때문에 설립업무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결성 당해연도 8월에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 발기인대회와 창립대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사무국을 마련,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1989년 11월 14일에는 상공부의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졌다.

포장용 골판지 및 판지상자를 제조하는 전국 중소지함업체들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사간의 상호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협동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업계의 요구에 의해 창립된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은 설립 당해연도의 조합원수가

38개사에 출자금액 8천만원있었는데 반해 1996년말에는 조합원사 140개사, 출자금액 2억2천3백만원을 보유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현격한 성장을 하게 되었으며 설립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우수중소기업 표창을 받는 등 최근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조합계에서 내실있는 조합의 표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지합공업협동조합은 조합의 기능활성화와 함께 조합의 꾸준한 성장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계획 중에 있는데 그 첫 번째로 공동구·판매 사업을 통한 조합원 지원을 들 수 있다. 정부 등 공공기관이 골판지상자 및 판지상자를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촉진법 등 관련법규에 의해 단체수의 계약을 체결해 조합원사에 지원하며 조합원사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조합이 주체가 되어 공동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설립 초창기인 1990년도의 공동판매 사업은 연간 8천5백만원에 수혜업체는 1개사에 불과했던 것이 1996년도의 사업실적은 54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수혜업체는 62개사에 달해 조합원사의 공동판매 참여율이 매년 50%에 육박하고 있다.

한편 공동구매사업에 있어서는 1990년도에는 2억7천만원에 불과했으나 1996년에 이르러서는 35억8천만원을 기록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급변하는 경제연건에 조합원사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고 교육을 통해 조합원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매달 발간되는 조합지인 '월간 CARTON BOX KOREA'를 통해 업계의 신기술과 경영정보 등을 전달하고 속보성이 있는 자금지원, 인력수급정보 등은 지합 FAX 정보를 통해 수시로 전달하면서 조합으로써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

최근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 국제화 시류에 따라 국제 교류 및 해외연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합조합의 국제화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들을 일본, 중국, 유럽 등의 지역에 정기적으로 시찰단을 파견, 선진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합조합은 지합업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연구하여 지속적으로 대정부 및 관련기관에 대한 건의, 청원, 보고 등을 통해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선 대표적인 예로 골판지 및 판지상자에 대한 수출검사 면제 건의를 들 수 있다.

골판지 상자 및 판지상자에 대한 수출검사로 인해 업계의 애로사항이 크다는 점을 감안, 지합조합은 수출검사를 면제해 줄 것을 관련부처에 건의하고 조합의 임원이 직접 방문해 면제를 요청해온 바 1991년부터는 수출검사를 면제받고 있기도 하다. 또한 노동집약적 산업인만큼 인력난에 의해 휴폐업을 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산업연수생을 신청할 수 있는 3D업종으로 선정하여 줄 것과 골판지 상자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골판지상자에 대한 중소기업 우선육성업종 지정을 존속시키고 신규로 무공해제품인 판지상자를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대정부 건의를 통한 지합조합의 큰 성과 중 하나로 수도권에 지합업체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는 것인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도권 내에서의 지합공장 설립이 불가능한 현행 법률을 개정해 무공해 저소음형 기업인 지합업체의 수도권 내 신설허가를 건의, 일정시설을 갖출 경우 신설이 가

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바 있다.

이 외에도 지합조합은 지합장학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장학회는 조합원사의 임직원 자녀 중 학업성적이 뛰어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을 선발하여 매년 6명씩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관련 전시회에 조합 홍보관을 개설해 조합의 활동을 소개하고 미처 수렴하지 못한 업계의 의견을 모으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매달 각 조합사의 대표 및 임직원으로 구성된 등산동우회를 결성해 업계의 친목도모를 통한 결속력을 강화를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과 업적들을 이루고 있는 한국지합공업협동조합은 설립 초부터 권익신장이라는 한가지 목적을 가진 업계의 요구로 탄생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사업추진력, 조합원사의 의견수렴을 통한 거듭나기를 통해 탄탄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사)한국물류협회

물류관련 교육·진흥·조사사업 수행



▲ 김여환 회장

(사)한국물류관리협회로 기관명칭을 변경하고

사단법인 한국물류협회는 1984년 9월 한국물류관리연구원으로 설립되어 90년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고 제1기 물류관리사 교육을 실시했다.

95년에는 (사)한국물류관리협회의회에서

재정경제원 산하에서 건설교통부 산하로 주무관청이 이관됐다.

1997년에는 정부가 위임한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사업을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는데 물류관리사는 화물유통촉진법 48조13항, 동법 시행령에 의거, 실시하는 국가공인 자격으로서 물류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계획, 조사, 연구, 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시행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물류관리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년마다 시행할 수 있다.

또한 한국물류협회는 건설교통부로부터 물류대상, 한국국제종합물류전, 물류우수논문공모, 국제물류세미나를 위탁받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93년 처음 시작한 이래 올해로 6회째인 물류대상 행사는 건설교통부 등 정부기관, 물류 관련 단체와 언론기관에서 후원하고 있으며 한국물류협회와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있다.

오는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리게 될 98 한국국제종합물류전(LOGISTICS SHOW 98)은 수송, 운반기기, 포장기기, 보관·창고설비, 물류정보시스템 등 물류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전문전시회로 국내의 기업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기관 등이 대거 참가, 신기술과 첨단제품을 다양하게 선보이게 된다.

물류대상은 물류체제 개선에 탁월한 공적을 이룬 기업, 단체 또는 개인을 발굴, 포상하며 물류우수논문 현상공모전은 물류에 대한 연구의욕과 관심을 높이고, 실제 적용 가능한 논문을 발굴, 포상하고 있고 우수논문은 물류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국제물류세미나는 전시기 간중에 국내외 관련업계 최고경영자들과 학계· 정부 관계자를 초청해 진행되며 관련 기술개발 현황과 향후 물류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과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한국물류협회는 이외에도 LOGISTICS책자 발간과 각종 물류관련 서적을 발간하여 업계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물류관리사 교육외에도 국내 물류 우수업체 견학, 해외연수, 물류통신교육, 물류관리사 보수교육 등의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물류협회 내 물류연구원은 물류관련 실태 조사연구, 물류기술의 진흥을 위한 선진물류 기술연구 개발, 물류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기관 단체와 물류정보 교류 및 협의체 구성, 물류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및 자문, 물류관련 자료발간 사업 등을 별도로 수행하고 있다. 물류연구원은 그간 교통부의 화물유통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 추진방향 수립에 관한 연구, 공진청의 물류부문 유통력 등 30종 KS규격 제정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제품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농협중앙회의 비료물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파렛트협회의 기업의 파렛트 이용실태 조사연구, 상공회의소의 물류표준화 추진 및 실천메뉴얼 제정에 관한 연구, 해외 물류표준화 동향과 사례연구, 철도 기술연구원의 철도소화물 업무의 원가상정에 관한 연구, 12개업체의 물류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등의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한편 한국물류협회는 IMF로 인해 경제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1차로 28명의 물류관리사를 배출하고, 6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2차로 물류관리사를 배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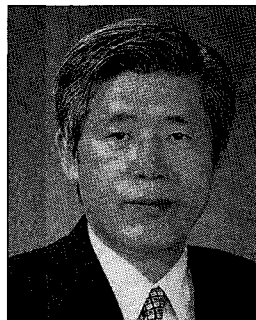
실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 교육은 물류분야의 재취업에 필요한 지식 및 물류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으로 실직자의 재취업을 위해 실시됐다.

또한 고급인력의 취업난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취업을 못하고 있는 대졸고급인력을 대상으로 물류관리 전문인력 양성과 물류관리사 자격증 획득을 위한 교육을 무료로 실시했다.

이외에도 지난 11월14일에는 창업을 위한 무역실무교육을 실시해 어려운 경영환경에서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스티로폴 회수 및 재활용 사업 적극 추진



▲ 우종일 회장

(사)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는 폐기물의 최소화 및 재자원화의 일환으로 스티로폴의 회수 및 재활용을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6개 원료제조회사와 30여 스티로폴 가공회사가 주축이 되어 1993년 4월19일 발족했다. 그 결과 설립후 6년제인 98년도 상반기에는 재활용률이 40.2%를 기록하는 등 그 성과가 높아지는데 공헌했다. 협회는 스티로폴 재활용 확대를 위한 캠페인으로 가전사와 공동회수 재활용 사업을 전개하고 관련 재활용단체와 협력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스티로폴 회

수,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제도연구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스티로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스티로폴 분리수거 홍보 사업으로 비디오제작·배포, 홍보물 및 협회보인 환경사랑 발간·배포, 대국민 재활용홍보 계몽, 관련단체와의 세미나 개최 및 조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왕성한 활동을 시작한 97년 2월13일에는 경기도 용인시에 페스티로폴을 재활용해 만든 잉고트(재생원료)를 연간 4백톤 가량,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개설했으며 3월31일에는 경남 통영시 용남면에서 바다를 깨끗이하기 위한 연안 지역 스티로폴 폐부자 회수처리 캠페인을 갖고 스티로폴 폐부자 소각로 1기를 증정했다.

특히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아시아EPS생산자기구총회를 개최해 유럽, 미국의 환경법과 재활용 실태에 관한 특별강연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박형우 박사와 4개월간의 연구 끝에 '스티로폴 상자를 이용한 과일 및 채소류의 선도유지 비교시험 및 포장표준화안 선정'이라는 책자를 통해 스티로폴상자가 골판지상자보다 신선도유지에 우수하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협회는 3월 4일 신입 임원진 선출을 통해 동부한농화학 우종일 대표이사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신입 임원진을 구성하고 더욱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3월 3일에는 부산공동어시장 및 부산·경남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페스티로폴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간당 페스티로폴 농수산물 용기 400kg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감용설비를 경남 김해 형물업체인 우성수지에 설치해 부산·경남지역에서 발생하는 스티로폴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됐다.

협회는 이러한 환경관련 사업수행으로 지난 6월 5일에는 제2회 서울환경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다. 또한 올해를 스티로폴 회수·재활용 정착의 해로 정하고 스티로폴 재활용률의 목표를 38%로 잡았는데 98년 상반기 스티로폴 재활용률이 목표를 상회하여 40%대에 진입했다.

올해 상반기 페스티로폴 발생량은 총 1만8천983톤으로 그 중 40.2%인 7천632톤이 재활용됐으며 재활용된 페스티로폴은 재생수지 5천562톤(72.9%), 경량폴 1천184톤(15.5%), 접착제 886톤(11.6%) 등으로 재생됐다. 또한 재생수지를 2천600여톤으로 중국 등 해외로 수출되어 약 91만달러의 외화획득에도 공헌했다.

더욱이 98년도 상반기 동안 스티로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우드랜드, 한림화학, 한진합성목재 등 재생업체의 환경마크 인증획득을 지원했으며 농산물포장의 선진화를 위해 선진국 스티로폴 상자 사용실태를 담은 사진자료집을 발간했다. 특히 바다의 날 즈음에는 지난해 경남 통영에서의 행사에 이어 전남 고흥군에서 스티로폴 폐부자 수거처리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전국 지자체에 감용기 구입금의 일부인 2억8천3백만 원을 지원했으며 이 외에 직영회수 차량운영, 재생품 수출선 확보, 재생품 수요확대 세미나 개최 및 참가 등 스티로폴 재활용 확산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28일에는 원료사와 가공사, 협회 관계자 등 24명이 참석한 농산물 포장스티로폴상자 가공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에서 협회는 가공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립농산물검사소 등 관련부처에 스티로폴 포장재의 표준출하규격 제정건의 및 스티로폴 포장재 우수성 홍보, 스티로폴 농산물 포장상자 개발연구 추진, 스티로폴 농산물 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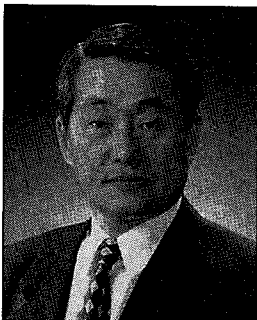
의 장점 및 재활용 촉진사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난 9월 10일에는 식품용기의 안전과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세미나를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물론 검증된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식품용기의 위생성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며, 특히 라면용기에서 검출되는 스티렌다이머와 스티렌트리머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전문연구기관에서 여성환경호르몬 작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검사 발표되었다는 것을 감안, 장기적인 연구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결론지었다.

협회는 이외에도 각종 전시회 참가, 어린이 스티로폴 재활용업체 견학, 환경마크 인증획득 지원, 재활용 유공자 감사패 증정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한국파렛트협회

파렛트 업계 발전 및 품질 향상 도모



▲ 장문영 회장

와 물류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96년 5월 설립됐다.

사단법인 한국파렛트협회는 국내 파렛트 사용수준의 향상과 표준파렛트 보급 촉진, 파렛트품질 향상, 파렛트 제조업계의 선진화 등 국내 파렛트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며 물류합리화

사단법인 한국파렛트협회는 이외에도 파렛트 사용관리, 수주 내고, 국제협력, 파렛트 및 주변 기기의 경영, 제조기술에 관한 자료수집,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회원사 수는 총 77개이며 통상회원 46개사, 사용회원 26개사, 특별회원 5개사로 구성되어 있다.

사단법인 한국파렛트협회는 창립 이후 짧은 기간 동안에도 파렛트 관련 세미나 개최, 파렛트 생산 및 사용실태 조사사업 실시, 농림수산부에서 실시한 농산물 물류표준화 실무작업반 참여, 파렛트 상담실 운영 및 한·일파렛트세미나 개최와 함께 제1회 파렛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또한 올해는 파렛트 생산, 사용실태조사 보고서 발간했는데 업계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였다.

지난 1월 발간된 이 보고서는 국내 최초 파렛트 생산 및 실태조사 종합보고서로 사단법인 한국파렛트협회가 1년여의 조사연구 및 분석을 통해 발표됐던 것으로 총 200페이지로 구성됐다.

특히 파렛트의 생산, 사용 종합실태와 파렛트의 생산 및 사용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내용은 기존에 발표되지 않은 자료로 평가받은 바 있다.

또한 협회는 지난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ISO/TC51 파렛트기술분회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는데 여기서의 일관 수송용파렛트의 검사방법, 사용기능 요건, 설계등급과 최대작업적재기준, 파렛트연결부위 시험기준, 파렛트연결부위 강도측정, 목재파렛트의 조립 및 수리

를 위한 고정물의 품의 등에 대한 내용이 논의됐다.

특히 ISO6780개정안에는 과거 4개의 국제규격에 한국의 표준파렛트인 1100mm×1100mm를 포함, 모두 6개의 규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난 달 1일부터 7일까지 ISO총회에 참석하여 WG2, WG7, WG6 참가하여 일관 수송용 파렛트의 품질기준 규격, 일관 수송용 파렛트의 연결부분 기준을 개정했다.

파렛트협회는 선진기술을 접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는 98 국제물류종합전에 해외연수단을 파견했다.

이 해외연수단 파견은 전시회 참관과 일본의 파렛트제작회사, Japan pallet lental 본사 및 DEPO, 일관파렛트화 모범업체의 수도권 물류센터를 견학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파렛트의 제작, 사용, 운영 등의 전과정을 접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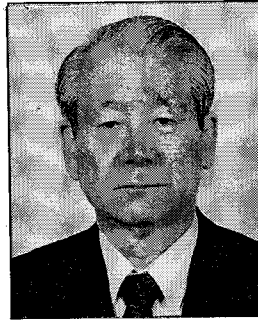
정기적으로 매년 4회 발행하고 있는 파렛트뉴스는 회원업체 및 파렛트관련업계의 소식과 기술정보 등을 소개함으로써 정보부재가 극심했던 파렛트업계에 정보지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 내용의 다양화에 더욱 충실해 관련업계의 소식에 대한 부분의 비중을 더욱 늘려 회원사들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다.

사단법인 한국파렛트협회는 장기적으로 해외 자본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파렛트 제작, 생산회사를 3개사 매입이나 합작을 계획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의 파렛트 대여업체인 한국파렛트풀 주식회사도 지분참여를 하게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국포장학회

4년제 대학 내 포장학과 설치에 주력



▲ 신동소 회장

한국포장학회는 1993년 5월 가칭 한국포장학회 창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추진위원장인 서울대학교 신동소 교수를 비롯한 8인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해 6월 일

본포장학회 임원 11인이 내한하여 한·일포장심포지엄을 개최, 학회 설립기반을 마련했다.

일본포장학회 임원 내한으로 제1회 한일포장기술교류회를 실시하고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구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원장과 한국포장학회 설립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본격적인 학회 설립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본격적인 학회 설립에 들어갔다.

94년 3월 서울대학교 신동소 교수 등 20명이 회칙을 제정하고 가칭 한국포장학회 발기인대회를 갖고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린 IPP국제포장전시회에서 한국포장학회 창립 취지서 발송을 통해 학회 설립을 홍보하고 94년 7월 서울대학교 호암생활관에서 회원 124명의 한국포장학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한국포장학회는 포장재료, 포장가공기계, 포장시스템, 유통 및 디자인 등 포장과 관련된 과학 및 기술의 진전을 통하여 국내 포장산업 발전과 포장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기본사업으로는 연구발표회, 연구회, 강연회, 및 견학회 등을 개최, 회지 및 기타 본회의 목적에 관계되는 자료발송, 국내외 관련기관, 단체와의 연락 및 협력, 업계에 대한 자문 및 필요시 기술지도, 대학에 포장전공학과 설립추진 및 확대 등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 세미나, 심포지엄을 추진하고 있는 학회는 94년 11월 '21세기 포장산업 예측'을 주제로 제1회 국제심포지엄을 주최해 성황리에 마쳤다.

95년 6월에는 회원 32명의 일본포장학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연포장과 점착제'를 주제로 제3회 한일포장기술교류회를 주최했으며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품포장 전략을 주제로 한 제2회 국제포장심포지엄 주최, '생고분자필름의 식품 및 산업적 이용'을 주제로 한 제3회 국제포장심포지엄 개최, '지·판지포장의 최신 개발동향'을 주제로 한 제4회 포장학술심포지엄, '농수산물 개방화시대의 유통정책과 포장재의 특성'을 주제로 한 제5회 포장기술 국제세미나 개최, '이층골심판지의 개발'을 주제로 한 제6회 포장재료 개발동향에 관한 세미나 주최, 연포장의 기술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제7회 정기학술세미나 주최, '플라스틱포장재의 환경에의 영향'을 주제로 한 제8회 포장학술심포지엄을 주최하였고 지난 달 12일에는 '포장산업과 환경호르몬인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주제로 한 제9회 포장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해 창립 6주년간 다양한 세미나를 선보였다.

세미나 및 심포지엄 외에 학회 회원들의 우수 논문이나 발표자료를 소개하는 포장학회지를 95년 10월 창간했다.

그간 발표된 내용으로는 1996년 발표된 포장

필름의 산소차단성에 따른 육가공 제품의 저장수명 연구, 신문고지와 벗집의 혼합이 포장 트레이의 물성에 미치는 효과, MA포장용 기능성 포장 소재개발에 관한연구(1), 환경을 고려한 선진국의 지·판지 포장재 적용 추세, 농산물의 신선포장과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일본에 있어서 농수산물 포장의 연구와 기술개발의 현황이 있다.

1995년에는 발표된 폴리올레핀 포장재 중의 향상화제 분석, 흡습억제기능을 보유한 왁스처리 벗집 트레이의 개발, 카라기난 생고분자 필름의 기계적 물성에 관한 연구, 21세기의 포장산업의 전망에 대한 내용이 발표됐다.

1996년 제2권에는 적재된 포장상자 내의 온·습도 변화특성과 적정 펄리드패턴, 탄산 가스주입이 압출성형 생분해 포장완충재의 성질에 미치는 영향, 셀룰로오스와 식용코팅이 자두의 저장 중 색변화에 미치는 영향, 결로방지제가 MA필름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 고밀도폴리에틸렌 필름에서 손실되는 산화방지제에 관한 연구에 대한 내용이 발표됐다.

1997년에는 사과 포장용 골판지 상자의 재질 구성에 관한 연구, 비결정 폴리아미드에 대한 유기화합물의 흡착 특성연구, 과실·채소류의 MA포장용 소재의 효과제고에 관한 연구(2), 수분 손상에 민감한 포장된 제품의 저장수명 예측, 수출용 농수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에 대한 내용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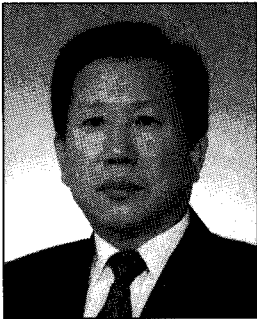
한국포장학회는 국내 관련사업 외에도 96년 7월 일본포장학회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한일간 정보자료를 교환하고 발전을 도모했고 97년 6월에는 한일포장기술교류회에 참석하여 국내포장과 설립에 대한 경험을 전수받기도 했다.

초대회장인 신동소 전 서울대학교 교수가 현재까지 유입해 오고 있는 한국포장학회는 정회원, 법인회원, 학생회원 및 명예회원이 있다.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한국포장학회에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원은 회지를 받아 볼 수 있고 회지에 투고할 수 있으며 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가진다.

한국포장학회는 현재 편중된 회원을 포장산업 전반의 다양한 층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 중이며 4년제 대학의 포장학과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진행을 추진하고 있다.

(사)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

금속캔 재활용 및 선별분리수거 체계 구축 선도



▲ 김용운 회장

국내에서 음료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포장용기 중 재활용 체계를 가장 잘 갖추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금속캔이 아닐까 싶다.

금속캔의 경우 알루미늄과 스틸의 두 종류로 구분되며 분리수거 시에도 이들을 구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하지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분리수거의 방법과 효과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그 체계가 갖추어져 가고 있다.

환경문제의 가장 큰 주범이 포장폐기물인양 오도되면서 소비자들에게 가장 폭넓은 인식을 가지고 있던 금속캔업체가 스스로의 지구책을

찾던 중 금속캔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사업을 촉진해 자원의 절약과 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발전 및 국민생활의 번영에 이바지하고 회원간의 이익을 증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사)한국스틸캔재활용협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1994년 5월 28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금속캔재활용에 있어 환경부 사업자단체로 지정된 (사)한국스틸캔재활용협회는 1996년 (사)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로 개칭하면서 최근 소비가 늘고 있는 알루미늄캔 관련업계를 포함해서 명실공히 국내 유일의 금속캔관련 재활용협회로 자리잡게 되었다.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사)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는 폐캔의 효율적인 수거 및 자원화를 목적으로 전국에 걸쳐 27개소의 회수·재활용 사업소를 설립해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39개의 정회원사를 비롯해 21개의 준회원사까지 협회의 회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정부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금속캔 재활용의 경제성 확보와 유리 및 관리를 위한 체계구축과 관리, 그리고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사)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는 다가올 99년 금속캔의 회수·처리 사업을 15.3% 정도 증가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현행 27개소인 회수·재활용 사업소를 29개소로 확대하고 중점관리 대상업체 6개소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업체간에 일어날 수 있는 과당경쟁을 억

제하기 위한 중재에 협회의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며 폐캔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폐 스틸캔에서 알루미늄 뚜껑을 분리하는 설비를 개발,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현재 협회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회수·재활용 시스템을 캔 제품의 유통과 연계시켜 보급에서부터 회수에 이르기까지 효율성을 극대화해 소비자들을 위한 포장재로서의 제모습 갖추기에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또한 금속캔 재활용 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선진국의 재활용 체계와 실태를 조사하고 이러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원사 사장단 회의에서 공유, 업계 스스로의 인식확산과 기술력 확보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그리고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의 기능을 최대한 효율화해 예치금을 납부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8%에서 10%로 감면을 확대하고 폐캔 회수와 처리사업을 (사)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책을 마련하고 있다.

폐캔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회수시스템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회수시스템은 소비자들의 분리수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는데 (사)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에서는 폐캔 회수 및 재활용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확산을 위해 연간 10회의 캠페인 활동을 정례화하고 전화카드 및 캔 저금통으로 홍보용 판촉물을 만들어 보급하면서 실생활 속에서 금속캔 재활용에 대한 인식의 자리를 넓혀갈 계획이다.

그리고 좀 더 폭넓고 발빠른 홍보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의 브로슈어 제작은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

이지를 개설해 소비자들에게 금속캔은 물론 자원재활용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알려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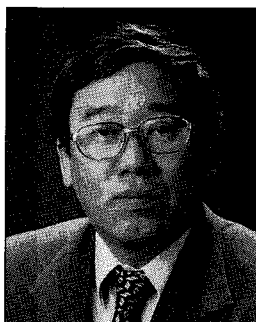
총 60개사에 이르는 (사)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의 회원사들은 소재분과와 제관분과, 식품분과로 나뉘어 있는데 이러한 분과의 구성만 보더라도 금속캔 분야와 관련된 모든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추진해 가는 (사)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최근 음료시장이 커지면서 음료용기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양한 외관과 재활용성, 기능성과 편리성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지금, (사)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는 신기술개발 및 도입과 업계간의 공익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금속캔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해내는 협회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사)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산업 내 패키지디자인 위상제고 역할 주도



▲ 김태중 회장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권위의 패키지디자인 대표체인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는 1978년 패키지디자이너 상호간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산업계 포장디자인의 육성 및 국제 교류를 통한 한국포장디자인의 발전을 기할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패

키지디자인협회를 모태로 하고 있다.

설립 직후인 1979년에는 29명의 회원이 참가한 창립 전을 열어 대중들에게 당시로서는 생소하기만 했던 패키지디자인에 대한 인식확산의 첫 걸음을 떼었다.

지금까지도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의 가장 주요사업 중의 하나인 우수포장콘테스트전 즉, 팩스타(PACKSTAR)전은 1981년 회원전의 형식을 빌어 시작되었다.

당시 껌포장지 재활용을 주제로 한 특별기획전이 함께 열리기도 했다.

그 후 2년마다 테마를 가지고 회원전을 실시했는데 83년에 담배포장디자인을 테마로 시작되어 85년에는 위스키포장디자인, 87년에는 수출포장디자인 등 한 분야에 대한 테마를 통해 품목별 패키지디자인의 심도있는 연구에 큰 역할을 하였다.

한편 우수포장디자인전문가초청간담회를 통해 미국과 일본 등 포장 선진국의 현황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해외포장디자인 시찰단을 파견하면서 선진포장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1993년은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로 공식명칭을 변경하고 매년 열리는 아시아패키지디자인 서울 1993을 개최, 한국, 일본, 상해, 대북 등 아시아 포장선진 4개국이 참가해 정보를 교환하고 각국간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로 마련되고 있다.

1994년에는 상공자원부로부터 사단법인 단체로 승인받아 (사)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로 공식명칭을 바꾸고 새로운 출범을 했으며 1995년에

는 WPO 세계포장기구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해 명실공히 국내 최고 권위의 포장디자인대표체로의 모습을 갖추었다.

국내 유일의 패키지디자인 단체로 산업계 디자이너들로 결성된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는 기업과 사회대중에게 패키지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낙후된 디자인 분야를 개선시키는데 앞장섬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의 시장에서 강력한 상품력을 지닌 마케팅 활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토대인 디자이너의 능력을 발굴하는데 그 주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성장 과정을 토대로 3년을 주기로 한국패키지디자인총람을 발간해 업계의 현황을 공유하고 업계에 알려내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매년 한국팩스타전을 개최함으로써 업계는 물론 대학생들의 패키지디자인에 대한 인식 제고는 물론, 업계로의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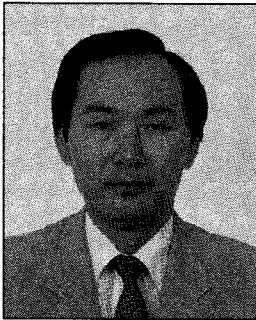
또한 아시아 패키지디자인 교류전을 통해 아시아 포장디자인강국과의 정보교류 및 상호발전을 위한 각국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 가고 있다.

한편, 올해는 한국에서 지난 달 24일부터 APD SEOUL 98을 개최해 어려운 시기임에도 우리나라는 물론 참가한 아시아 4개국의 포장디자인업계 현황과 발전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협회의 역할을 다한 바 있기도 하다.

앞으로도 (사)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는 패키지디자이너간 상호간의 공동연구과제로 새로운 포장의 연구개발은 물론 패키지디자인계를 주도해 나갈으로써 기업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약하며 새로운, 그리고 높은 도약을 위한 발돋움에 여념이 없다.

한국패키지디자인학회

패키지디자인 학문적 독자성 확보, 개별학과 설립 추진



▲ 선정근 회장

1993년 4월, 국내 패키지디자인 학계에 몸담고 있는 인사들이 회원 상호간의 자질향상 및 한국의 포장디자인 육성발전을 위한 연구와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하게 된 한국패키지디자인

학회는 국내 디자인업계에서 패키지디자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았을 때부터 각 대학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했고, 그 과정에서 패키지디자인을 접하면서 국내 실정에 맞는 패키지디자인학을 정립하는데 많은 공헌을 해 온 115명(98년 11월 현재)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자 강단에서 강의를 하거나 대학원 재학 중인 115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회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한국패키지디자인학회는 회장단을 축으로 사무국, 학술심의회를 비롯해 9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왕성한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총무분과의 경우 한국패키지디자인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총무, 인사, 재정 등 제반 행정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기획분과의 경우 사업제반분야를 기획, 조정하고 지도한다.

자기PR시대라고 할만큼 홍보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 현 시대에 학회의 활동과 현황 등을 알려나가는 역할을 맡은 홍보분과는 유관기관, 대학, 산업체 섭의를 통하여 신상품 출현을 분석하며 학회보를 출간하고 '베스트패키지 콘테스

트' 등 학회관련 사업의 대외 홍보관계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학회이니만큼 논문집의 발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출판분과에서는 학회 내의 연구·교육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역할에서 시작해 연 2회 발간되는 논문집의 출판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학회의 역할 중 하나인 정보력과 학술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또 하나의 분과로 정보분과를 들 수 있는데 학회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료조사와 분석, 통계, 회원분석 업무를 통해 학술적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내고 있다.

세계화시대니, 글로벌화니 하는 말들이 현실감있게 다가올만큼 이제 모든 산업분야에 있어서 세계화의 추세는 간과할 수 없는 분야인데, IMF 체제 하의 경제위기를 탈피할 수 있는 첨병으로 디자인이 거론되고 있는 지금, 디자인업계는 한국적 디자인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한국적 디자인의 세계화를 위해 한국패키지디자인학회에서는 학회의 국제교류와 패키지디자인 계열 외국대학의 학술활동을 분기별로 실적 보고하는 업무를 통해 학회의 역할수행을 담당하는 국제분과를 두어 학술적인 접근을 통한 세계적 디자인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학회원의 구성이 전임교수(50%), 강사급교수(40%), 그리고 대학원 재학생(10%)으로 구성되어 있는만큼 한국패키지디자인학회에서는 회원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분과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학술세미나를 주관하고 학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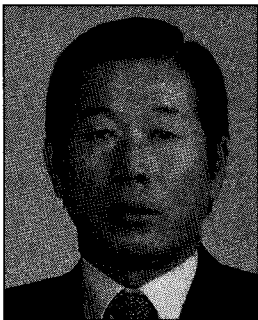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질높은 회원교육의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또한 제1무임소와 제2무임소를 두어 학회의 재정자립을 위한 산업체 지원연계사업과 대내 회원 유대결속에 대한 제반업무와 국내 관련단체 및 대외 교류업무에 관한 학회의 제반업무를 지원하게끔 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대학 내 부재했던 패키지디자인 관련학과가 한양대학교와 백제예술대학에 설립되면서 질높은 패키지디자인 교육과 관련학과의 설립을 위한 토대만들기에 더욱 분주한 한국패키지디자인학회는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는 1999년에 경제불황의 시기를 디자인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자 기존 사업을 더욱 견고히 준비하고 있다.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유리관련 국내 최대조직 폐유리 재활용 체계 구축



▲ 윤국현 이사장

메소포타미아 내지 이집트 문명이 번성하던 시대부터 존재했고 3,500년전 경부터 보급되기 시작했던 유리는 이제 우리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포장용기 분야에서도 그 역할의 비중은 마찬가지인데 1962년 5월 21일 유리병을 비롯해 유리관련 제품의 유용성을 알려나감과 동시에 국내 유리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

국유리공업협동조합은 1998년 10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63개업체가 조합원사로 가입되어 있다.

이는 국내 대다수의 유리제조업체가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명실공히 국내 유리업계의 구심점을 이루는 단체라 할 수 있다.

63개 조합원사들은 병유리, 판유리, 유리식기, 이화학·산업용유리 등 각종 제품을 최신의 제조기술과 엄격한 품질관리로 내수는 물론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다.

한편,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은 유리를 통해 우리의 생활을 편하고 풍요롭게 하며 새로운 유리문화를 창조하는데 이바지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내 유리업계의 권익보호와 공생을 위한 완충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은 1986년 제 1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어 업계 관계자들에게 질높은 유리관련 신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유리심포지엄과 세계 선진국들의 유리산업 전반을 돌아볼 수 있는 국제유리산업전을 통해 업계의 성장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매년 국내 유리공업현황에 대한 책자를 발간함으로써 산업계에 유리공업의 위치를 알리고 업계의 정보공유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유리관련업계의 권익보호와 입장대변을 하는 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관리, 기타 서비스 등 공동사업과 단지 및 공동설비의 조성 및 관리경영을 추진하고, 조합원간의 사업조정 에 관한 기획 및 조정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경제위기의 한 발로라 할 수도 있을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침해에 대비,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은 조합원사의 사업분야가 침해당했을 경우

주무장관에 대해 조정신청을 하므로써 업계의 권익보호의 역할을 해내고 있기도 하다.

한편 환경문제가 본격적인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유리의 환경친화성을 널리 알리고, 유리의 재활용을 더욱 촉진해 환경친화적인 포장재로 거듭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95년 7월 설립된 유리재활용협의회는 이듬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유리병 회수, 처리 사업자 단체로 지정되면서 그 활동을 본격화해 왔다.

유리재활용협의회의 주요활동을 살펴보면, 우선 재활용촉진사업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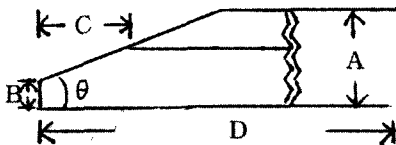
또한 유리병 회수재활용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해 이의 확대·보급을 선도하고 있으며 유리

병 재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 사업을 전개하고 있기도 하다.

재활용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소비자들의 인식전환인데 유리재활용협의회는 '3색분류 배출 및 재활용 홍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유리병 및 폐유리에 의한 환경영향을 조사,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대정부사업 또한 활발하게 펼쳐 다른 포장용기에 비해 유리병의 경우 공병환급제도가 정립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환경친화적인 용기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

독타 브레이드



◆ 규격 및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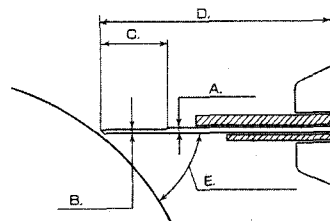
- 두께(A): 0.39mm, 0.55mm(표준), 1.00mm
- 폭(D): 30-70mm (50mm가 표준)
- 날의 두께(B): 0.05mm
- 날의 폭(C): 0.6mm
- 각도: 13도 재질: 폴리에스터
- 길이: 75m/reel(표준의 경우)

플라스틱 독타 브레이드(영국 ESTERLAM사 제품)

플렉스 인쇄, 그라비아 인쇄, 코팅, 라미네이션 분야에 널리 쓰이고 있다. 특히 단보루 인쇄용 플렉스 인쇄, 산화철 코팅, 접착제 코팅등에 매우 좋다

주요한 특징

1. 마모가 적어 동판이나 아니록스롤의 수명이 크게 연장되어 재가공(부식,도금)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2. 안전하여 손을 베는 일이 없다.
3. 재질이 유연하고 취급이 간단하여 폭이 넓은 기계에 적합하다.
4. 내용제성이 뛰어나다.
5. 물에의 적응이 뛰어나다.



◆ 규격 및 종류

- 두께(A): 0.15mm(표준), 0.20mm, 0.25mm
- 폭(D): 30-70mm (50mm가 표준)
- 날의 두께(B): 0.07mm(표준)
- 날의 폭(C): 1.20mm(표준)
- 길이: 100m/reel

스틸 독타 브레이드(스웨덴 MGS사 제품)

주요한 특징

1. 정선된 스웨덴강 사용
2. 고정도의 날연마
3. 롤 적응성이 좋은 특수날 형상
4. 긴 수명

수입판매원: 예림상사 TEL:0343-24-4505 FAX:0343-23-8169